

#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제2권 2호 (2012년 12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 기  
• 기

## 현대사회와 다문화

**현대사회와 다문화**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합니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문제들에 관한 독창성 있는 내용을 담은 학술 논문이면 기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연락처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본관 6층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화 053-850-4264 팩스 053-850-4265  
이메일 [multiculture@daegu.ac.kr](mailto:multiculture@daegu.ac.kr)

###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및 편집위원회 임원

소장 김연희

운영위원 김동윤, 김명광, 김화수, 이민경, 이희영, 최철영

편집위원장 최병두(대구대)

편집부위원장 이희영(대구대)

편집위원 강운선(대구대), 김명광(대구대), 김일환(성균관대), 박남수(대구대), 박선웅(한국교원대), 설동훈(전북대), 신혜란(University College London), 이규환(대구대), 이기영(부산대), 이동석(Hiroshima University), 이민경(대구대), 이소영(대구대), 이수정(북한대학원대학교), 조현미(경북대), 최종렬(계명대), 홍인기(대구대)

편집간사 이교일

표지디자인 김수정

#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2012년 제2권 2호

---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2권 2호를 펴내면서 / 최병두

## 논문

---

- 한국 이주배경 청소년 분류와 관련 정책의 한계점: 미국 사례와 비교 / 김도혜 305
- 흑인 관련 이슈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태도 결정 요인 / 이소영 334
-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 / 최병두 362
- 한국 노동현장의 다문화현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용욱 396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 천호성 · 박계숙 416

## 현장탐방

---

-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꿈꾸며 / 이희영 445

## 서평

---

- Immigrant Women Tell Their Stories(2004, Roni Berger) / 이민경 463



##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2권 2호를 펴내면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나 다문화 관련 현상들과 접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게 되었고, 기존의 전통적 의식과 태도, 행동 양식을 많이 바꾸게 되었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도 크게 늘었으며,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이 관련된 연구를 크게 늘여가고 있으며, 관련 연구소들이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 설립되었고, 관련된 전문 학술지들도 본격적으로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현대사회는 항상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환기적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여러 의문들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 분야들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과연 다문화사회로의 진정한 전환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와 문화의 지구화 과정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더 직접적인 의문으로, 우리의 연구소나 학술지는 과연 다문화사회로의 진정한 전환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지 새롭게 등장한 어떤 주제를 우리의 입장, 우리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성찰에 바탕을 두고, 학술지의 형식과 내용을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재구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 10여 년간 대학 및 국가에 의한 연구자들의 양적 업적 관리는 엄청난 학술지들과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게 했으며, 이로 인해 실제 현실과 밀착된 연구 활동은 오히려 외면되는 경

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주제에 부응하여 새롭게 등장한 학술지의 경우 등재(후보)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이로 인해 업적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학술지의 논문 투고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연구자들의 자발적 의지로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한 연구소, 창간한 학술지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정체성을 재확인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사실 이번호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앞서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나 해외 국제 이주 송출국의 특성 분석 또는 이주 수용국들과의 비교를 위한 논문들로 특집을 구성하고자 기획했었다. 그러나 막상 원고 청탁과 수집 과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된 특집을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투고된 논문의 편수도 크게 줄어서, 총 5편의 논문과 '현장 탐방', '서평'으로 이번호를 구성, 편집을 하게 되었다.

우선 본래 기획된 의도에 따라 투고된 논문으로, 김도혜의 논문은 우리나라의 이주 청소년 정책을 그들의 이주배경에 따라 분류하여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정책과 비교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이 국경통제 정책과 이주민 통합 정책의 혼동,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정책과 지역사회 차원의 정착지원 서비스 간 미분화 등과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국경통제정책과 이주민통합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철학이 긴장관계를 이루면서도 균형을 찾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사례 비교와는 다소 다른 맥락이지만, 이소영의 논문은 세계에서 전형적인 다문화사회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미국사회의 인종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이 논문은 미국 사회의 일반 유권자들이 흑인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최병두의 논문도 초국적 이주에 관한 해외 지역 또는 국가에 관한 연구 기획에 따라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의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의 일반적 특성으로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의 지속적 증가 추세, 이주형태 및 경로의 다양화와 복잡성, 이주의 여성

화를 포함하여 저기능 노동이주의 탁월함, 그리고 미등록(불법)이주자의 비중과 이로 인한 인권 억압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차이 요인과 관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이주 요인에 관한 분석 및 이에 따른 영향과 전망, 과제 등을 다룬 다른 논문의 선행연구로 제시되었다. 이용욱의 논문은 한국 노동현장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현상의 정도와 양상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해외 사례들과 비교하여 고찰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따른 문제와 더불어 이들의 기여에 대해 평가하고, 나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이민자들의 준법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밀착 경험을 다룬 천호성, 박계숙의 공동연구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체험적 관찰과 면담을 주요 방법으로, 학부모와 공부방 교사 등에 대한 인터뷰를 보조 방법으로 활용한 실행연구이다. 이 연구의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보여 준 몇 가지 특징들, 즉 학교부적응 현상, 낮은 자존감과 공격적 성향, 칭찬에 대한 적극적, 긍정적 반응, 그리고 언어나 대화능력이 학교생활에서 거의 문제되지 않음 등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이 논문은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이벤트성 행사의 문제, 담임교사와의 의사소통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장탐방’의 글로는, 이희영 교수가 대구시의 주변도시인 경산시 소재 ‘경산 이주노동자센터’를 탐방하여, 이 센터를 직접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김현주 소장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김현주 소장은 이주노동자 단속문제에 항의하다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충돌한 일로 구속까지 되었던 경험을 가질 정도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착생활을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마지막 이민경의 ‘서평’은 로니 버거(Roni Berger)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주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심층인터뷰로 풀어낸 책, ‘이주 여성,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다’(Immigrant women tell their stories)에 관한 공감적 독해를 저술하고 있다.

이번 호의 편집 결과로 얻어진 교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를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글의 형식을 다양화하고자 한다. 즉 전문 연구자들의 ‘일반논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자들과의 대면적 접

축 장소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담아내기 위하여 ‘연구보고’와 ‘현장탐방’ 형식의 글을 가능한 한 신고자 한다. ‘연구보고’는 주로 외국인 이주자들을 직접 대하면서 상호 경험을 하게 되는 교사나 활동가들의 글을 싣는 자리가 될 것이고, ‘현장탐방’은 전문연구자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탐방하여 활동가들과의 대담을 싣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정책보고’의 자리를 만들어 정책 입안자나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자의 활동을 담아내고자 한다.

이와 같이 편집 방침을 다소 변경하여, 앞으로는 규격화된 형식의 ‘논문’ 편수를 4~6편 정도로 줄이고 대신 좀 더 유연한 형식의 글들을 실음으로써 학술지의 필자 및 독자들의 폭을 전문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현장의 활동가들, 관련 정책 입안자들, 프로그램 관리 및 시행자들, 나아가 외국인 이주자들로 확대시켜 나가고자 한다. 『현대사회와 다문화』의 편집 방침에 대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더 많은 필자들이 원고를 투고해 주고, 더 많은 독자들이 읽어 주기를 바라면서, 본 학술지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12년 12월 30일

편집위원장 최 병 두